■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23-155.
http://doi.org/10.17948/kcs.2023..99.123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조성배경* **

정성권(丁晟權)***

목 차

1. 머리말
2. 태조 왕건 조성설 검토
3. 철불의 조성 배경과 혜종대의 불교조각
4. 맺음말

국문초록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 철불'로도 알려져 있는 초대형 철불이다. 하사창동 철불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천왕사지에서 반출되었으며 그동안 고려 태조 왕건시기에 조성된 철불로 알려져 왔다. 본문에서는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석불, 석탑, 탑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불교미술품은 앞 시대 왕조와 형태적 측면에서 강한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던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석굴암 본존불을 직모한 하사창동 철불의 경우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시기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천왕사지와 바로 인접한 동사지의 발굴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천왕사지의 경우 961년 고려 광종이 대대적으로 중창한 사찰임을 알 수 있었다. 광종이 하사창동 철불이 있는 천왕사 바로 옆에 동사를 창건한 이유는 반 광종세력인 광주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6050).
** 본고는 2022년 1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22년 동양미술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과 고려 혜종대의 불교조각)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의 경우 충주유씨 세력과 권력투쟁을 벌였던 혜종과 그를 후원하였던 왕규가 만든 불상임을 논의하였다. 혜종이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한 하사창동 철불을 조성한 이유는 혜종이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구 신라 세력이 혜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철불, 천왕사지, 동사지, 태조 왕건, 혜종, 광종, 왕규.

1. 머리말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의 전체 높이는 2.81미터이며[1] 무게는 6.2톤에 달하는 대형 철불이다. 대좌의 높이를 고려한다면 이 철불은 좌상임에도 참배자에게 4m에 가까운 거대한 불상으로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사창동 철불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그 크기로 인해 '세계 최대 철불'로 알려져 있다.[2]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1911년 현재의 하남 하사창동에서 이왕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철불이 있었던 곳은 하사창동 317-3번지 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3] 철불의 대좌가 발견된 곳은 하사창동 117-3번지의 민가였다. 이곳에 있었던 대좌는 불상의 상대석으로 보이며 2014년 소유주가 하남시에 기증하여 현재 하남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하사창동 일대는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천왕사가 있었던 곳임이 밝혀졌다.[4] 발굴조사 결과 천왕사의 중심사역이 있었던 곳은 하사창동 65-4일원과 그 주변지역이다. 천왕사지 중심사역에서 북쪽으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 철불이 있었으며 동남쪽으로 약 270미터 떨어진 곳이 철불의 석조 대좌가 있었던 곳이다. 철불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곳과 철불의 대좌가 확인된 곳은 중심사역과 거리가 있으나 고려초 번창한 대형 사찰의 사역 범위를 고려한다면 철불과 대좌가 있었다고 알려진 곳 모두 천왕사지의 사역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

---

1) 국립익산박물관,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전북 철불』, 2021, 38면.
2) BBS에서는 하사창동 철불을 주제로 '세계 최대 철불을 찾아서'를 제작하여 2020년 9월 18일 방영하였다.
3) 최태선, 「하남의 사원유적과 유물연구」, 『하남역사총서』 2, 하남역사박물관, 2020, 321면.
4) 천왕사지 중심사역 가람배치도에 관해서는 화랑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Ⅳ』, 56면, 2017, 삽도 4 참조.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통일신라 철불로 간단히 소개되었다.[5] 황수영은 하사창동 일대의 절터를 조사한 후 하사창동 철불을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비정하였다.[6]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단독논문은 최성은에 의해 처음 다루어진 이후 최근까지 여러 편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7]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다룬 논문은 대부분 철불의 조성을 태조왕건과 광주 대호족 왕규와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으며 하사창동 철불을 고려 광종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8]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의 조성과 관련한 문헌기록은 전무하다. 이러한 관계로 철불에 대한 논의는 나말여초기 철불의 양식변천과 하남지역 일대의 10세기 초 역사적 상황을 방증으로 하여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시기와 조성주체 및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철불이 있었던 천왕사지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한 동사지 역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미술사적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연구성과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시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태조 왕건 조성설 검토

1) 하사창동 철불의 양식적 특징과 태조 왕건 조성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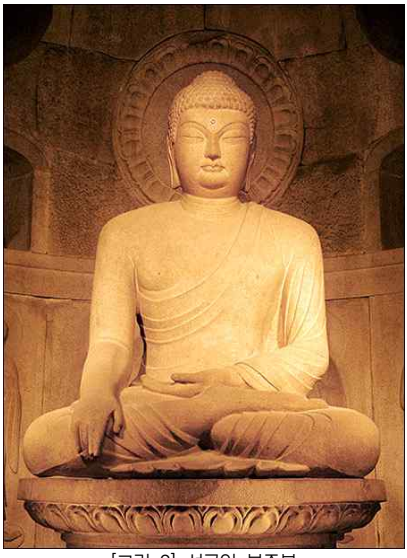
하사창동 석조여래좌상은 법의를 편단우견 형식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항마촉지인 수인을 취하고 있는 초대형 철불이다. 하사창동 철불은 머리에 중앙계주가 있으며 상호는 코와 입이 상대적으로 좁게 표현되어 있다. 눈꼬리 또한 살짝 옆으로 올라가 있어 온화한 인상보다는 정신적 강인함이 좀 더 강조된

5)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126-130면; 中吉功「造像銘のみる新羅の鐵佛二種」, 『朝鮮學報』 12, 朝鮮學會, 1958, 173-174면.
6) 黃壽永, 「高麗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66·167, 韓國美術史學會, 1985, 30면.
7) 최성은, 「고려초기 광주철불좌상연구」, 『불교미술연구』 2,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 이숙희, 「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출현과 의미」, 『한국중세고고학』 8,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 권보경, 「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의 함의와 기념비성」, 『미술사학』 4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1.
8) 진정환, 「고려 초 하남지역 불교미술품의 조성 양상」, 『文化史學』 57, 한국문화사학회, 2022, 49-54면.

인상이다. 특히 하사창동 철불의 눈은 동공 부분이 움푹 파 들어가게 주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불상의 눈은 눈동자 부분을 표현하지 않거나 살짝 도드라지게 나온 형태로 만든다. 또는 눈동자의 바깥 원형 부분만 음각선으로 원형의 동공을 만들어 눈동자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사창동 철불의 눈동자가 음각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철불을 개금할 때 눈동자 부분에 별도의 물질로 채워 놓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9]



[그림 1]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그림 2] 석굴암 본존불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전체적인 철불의 모습에서 석굴암 본존불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 보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일반적인 철불과 다르게 3미터에 가까운 대형 철불로 만든 점은 석굴암 본존불을 直模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통일신라불상으로 여겨졌다. 일본인 학자들이 하사창동 철불을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본 근거는 철불이 석굴암 본존상의 형식을 그대로

9)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눈동자 역시 음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눈동자는 별도의 흑색 점판암을 끼워 놓아 표현하였다.

재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10] 재료가 서로 다른 하사창동 철불과 석굴암 본존불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어깨의 곡선이나 항마촉지인의 수인, 우견편단의 착의형식, 넓은 띠모양으로 대의 깃이 표현된 점, 대의자락이 결가부좌한 다리 앞에 부채꼴로 모이는 점 등에서 서로 닮은 형식이라 하겠다.[11] 하남 하사창동에 있었던 천왕사에서 당시 성행했던 새로운 도상인 비로자나불상을 수용하지 않고 석굴암 본존불로 대표되는 통일신라 불상형식을 계승하여 항마촉지인의 철불이 조성된 것은 불교적인 요인 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12]

기존의 학설은 이러한 의도를 주로 태조 왕건 및 왕규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최성은은 하사창동 철불이 광주 대호족 왕규의 주도로 920-93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성배경으로는 신흥 고려왕실과 귀족세력의 기상이 담긴 고려초의 기념비적인 불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신라왕실과 대등해진 고려왕실의 위상을 상징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철불의 양식계보 역시 자세히 밝히고 있다.[13]

이숙희는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시기를 930-940년경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에 장대하고 위엄 있는 불상의 크기와 철이라는 재료가 가진 거칠고 강인한 이미지를 통해 통일신라와 같은 전제왕권을 회복하려는 고려 태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려 태조가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약화된 왕권을 재확립하고 그 위엄을 세우기 위해 천왕사에 대규모 불사와 함께 3미터에 가까운 대형의 철불을 조성한 것으로 본 것이다.[14]

위의 주장은 태조의 장인이기도 하였으며 혜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던 광주지역 대호족인 왕규가 태조와 함께 철불의 조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왕규는 본래 楊根을 본관으로 하는 咸規로 뒷날 태조의 사성을 받아 왕규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15] 왕규가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937년

10) 關野貞,『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130면.
11) 최성은, 앞의 글, 31면.
12) 이숙희, 앞의 글, 33면.
13) 최성은, 앞의 글, 31-38면.
14) 이숙희, 앞의 글, 18-19면.

(태조 20)부터인데 이때에 왕규는 後晉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16] 왕규는 본래 양평지역의 호족이었으나 937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광주의 대호족이 되었다. 현재의 하남지역인 광주의 대호족이 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1999-2002년 실시한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를 통해 왕규가 광주를 관할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후삼국시대의 하남(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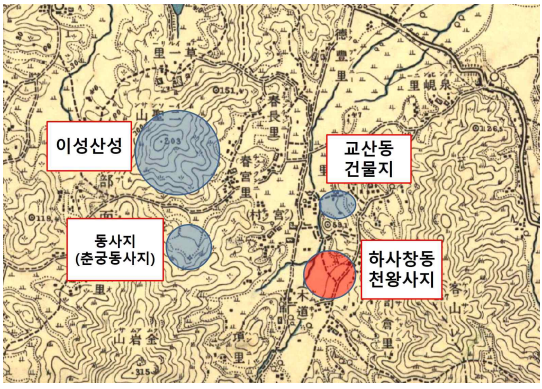
교산동 건물지는 하남시 교산동 78-3번지 일대에 소재한 대형 건물지이다. 발굴조사 결과 교산동 건물지는 나말여초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수차례의 중창을 거치며 사용된 官營建物址로확인되었다.[17]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에서는 哀宣伯土명 기와와 城達伯土명 기와가 각각 3점이 출토되었다.[18] 『고려사』에 의하면 명지성 장군 성달은 923년 3월에 그의 아우 伊達·端林과 함께 왕건에게 귀부하였으며[19] 애선의 경우 924년 7월 조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20] 애선은 하남 지역 출신 호족으로 궁예 때 대상이라는 관계를 획득하였고, 왕건의 쿠데타에 반 왕건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인물로 파악된다. 애선은 고려 초에도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으나, 924년의 조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성달은 후삼국시대 태봉국 철원도성의 중요한 남쪽 방어선인 포천 반월산성의 성주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성달은 포천 지역 호족 출신으로 궁예 때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왕건의 반역으로 반 왕건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성달은 923년 왕건에게 귀부하였고, 928년 이전에 그 세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21] 교산동 건물지에서 애선과 성달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점으로 보아 교산동 건물지의 초창 시기는 이들이 함께 활약했던 시기인 923년 3월

15) 최성은, 앞의 글, 28-29면;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일지사, 1977, 81면.
16) 『高麗史節要』 卷1, 太祖 丁酉條.
17) 畿甸文化財硏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04, 156-157면.
18) 畿甸文化財硏究院, 위의 책, 182면.
19) 『고려사』권1 세가1 태조6년.
20) 『고려사』권1 세가1 태조7년.
21) 이재범, 『高麗 建國期 社會動向 硏究』, 景仁文化社, 2010, 268면.

-924년 7월로 압축할 수 있다.[22] 하남 교산동 건물지가 애선과 성달이 관련된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왕규는 애선과 성달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924-928년 무렵부터 광주 대호족의 자리를 확보해 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 하사창동 천왕사지 위치도



[그림 4] 하사창동 천왕사지 위치도 및 주변 유적 지도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명문와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918년 궁예를 몰아 낸 후 919년 수도를 개경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인 923-924년경 하남 교산동에 대형 건물지를 조성하였다. 교산동 건물지가 있는 하남지역은 개경에서 한강을 건넌 후 남쪽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길목에 해당된다. 태조 왕건은 924년경 교산동 건물지를 완공한 후 925년 10월부터 고려건국 후

22) 畿甸文化財硏究院, 앞의 책, 2004, 156-157면.

처음으로 후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23] 그렇다면 교산동 건물지는 대 후백제 전쟁과 관련 있는 건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산동 건물지는 발굴조사결과 주변에 담장이 둘러져 있었으며 전면의 길이가 상당히 긴 일자형 건물이 여러 채 모여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4]

태조 왕건은 후삼국시대 남한강 유역의 주요 사찰에 유명한 선승들을 주석하게 하였는데 원주 흥법선원의 충담, 충주 정토사의 현휘, 광주 천왕사의 찬유, 지평 보리사의 여엄 등이 있다.[25] 여주 고달사지에는 찬유의 탑비인 원종대사탑비가 있다. 탑비의 내용에 의하면 태조 왕건은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찬유를 천왕사에 주석할 것을 청하였으며 찬유는 924년 천왕사에 住持하면서 사부대중을 크게 교화하였다.[26] 그러나 오래지 않아 여주 고달사로 옮겨가 그 곳에서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다.

태조 왕건이 924년경 찬유를 천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는 탑비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천왕사는 924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구제발굴 형식으로 이루어져왔기에 사지 전면에 대한 조사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천왕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7-8세기로 소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27] 남한강 유역에 있는 원주 거돈사의 창건이 864년(경문왕 4)경으로 알려져 있으며[28] 문경 봉암사는 879년(헌강왕 5) 창건되었다.[29]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천왕사의 경우도 9세기 후반경에는 사찰이 존재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태조 왕건이 923-924년경에 건립한 교산동 건물지는 천왕사지에서 북쪽

23)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景仁文化社, 2004, 78면.
24) 정성권, 「고려 태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동양학』 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5, 160-162면.
25) 나말여초 남한강 주변 선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참조.
26)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금석문검색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참조.
27) 최태선, 앞의 글, 328면.
28) 김용선, 「고려 전기의 법안종과 지종」, 『江原佛教史硏究』, 소화, 1996, 93-94면.
29)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금석문검색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참조.

으로 약 80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교산동 건물지 남쪽에는 교산지구 동편 객산 기슭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얕은 지맥이 있다. 이 지맥이 교산동 건물지와 천왕사지 사찰구역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산동 건물지와 천왕사지는 객산에서 뻗어 나온 지맥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는 모습이다. 교산동 건물지 출토 막새기와 편을 살펴보면 천왕사지 출토 막새기와와 닮은 모양의 기와가 거의 없다. 교산동 건물지 막새기와는 중판연화문 막새와 귀면문 막새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천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막새이다.[30] 천왕사지에 하사창동 철불 같이 초대형 철불이 만들어졌다면 이는 사찰의 중창에 버금갈 정도의 건축도 함께 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천왕사지에서 교산동 건물지에 사용된 막새기와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920-930년대에는 천왕사지에서 철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교산동 건물지는 태조 왕건이 923년부터 본격적인 대 후백제 전쟁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영 건물이었다. 후백제를 상대로 진행된 후삼국 통일전쟁은 고려가 논산에 있는 馬城에서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는 때인 936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교산동 건물지 바로 남쪽에 있는 천왕사에서 초대형 철불을 전쟁 중에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후백제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 중에 초대형 철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근거로 철불의 무게와 도검의 제작을 연관시킨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주장은 조선시대 환도나 사인검의 무게가 대체로 1킬로그램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6.2톤 무게의 하사창동 철불을 만드는 철의 양이면 6,200자루의 도검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936년 이전, 후백제와 전쟁 중에는 천왕사에 대규모 철불을 조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31]

---

30) 교산동 건물지 막새기와에 대해서는 畿甸文化財硏究院,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綜合 報告書』, 2004, 455-456면 참조. 천왕사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해서는 화랑문화재연구원,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Ⅰ』, 2016;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Ⅱ』, 2017;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Ⅲ』, 2017;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Ⅳ』, 2017 보고서 유물부문 참조.

31) 권보경, 앞의 글, 141면.

무기의 문제와 철불의 조성을 연관시킨 이 주장은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의 조성 역시 무기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국가가 무기를 평화적으로 회수하여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정책 아래에서 태조 왕건과 고려 왕실이 통일을 기념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이 견해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936년부터 태조가 사망하기 전인 943년 사이에 하사창동 철불을 만들었다고 보았다.[32]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했다는 주장은 고려 건국 직후 조성된 중요 불교미술의 전개 양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철불'로 알려지기도 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의 태조 왕건대 조성설은 결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후삼국 전쟁 이전의 시기에 하사창동 철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논의 하였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도 하사창동 철불이 태조 왕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태조 왕건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형 불교미술품이 신라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한 의도가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신라 석굴암을 직접 모방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태조 왕건대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철불의 조성 배경과 혜종대의 불교조각

1) 고려 초 불교미술의 흐름과 하사창동 철불

태조 왕건은 936년 9월 일리천 전투에서 패퇴하는 후백제군을 쫓아 마성에 주둔하였다. 이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백제 왕 신검은 태조 왕건을 찾아와 항복을 청하였다. 마침내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태조 왕건이 개태사 준공을 기념하여 940년 친히 작성한 「開泰寺華嚴法會疏」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개태사는 신검이

32) 권보경, 앞의 글, 143면.

항복한 그 자리에 통일을 기념해 조성한 사찰이다.[33] 태조 왕건은 통일을 기념하여 개태사를 건립하였으며 개태사에 석조삼존불입상을 조성하게 하였다. 태조 왕건은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건립할 때 담당 부서(官司)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 불상을 조성하였다.[34]

태조 왕건의 특명을 받아 만들어진 통일기념비적 성격의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신라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불상은 조화미와 비례미가 있으며 자비가 넘치는 온화한 이미지로 조각된다. 하지만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괴체적인 몸체와 커다란 손과 발을 갖고 있어 괴력과 힘이 넘치는 인상을 참배자들에게 준다.[35] 고려는 935년 신라 경순왕의 항복으로 신라를 온전히 흡수하였다. 만약 태조 왕건이 원하였다면 개태사에 현재와 같은 석조삼존불입상이 아니라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과 같이 통일신라 불상을 모방한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후백제 신검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장소에 의도적으로 괴력과 힘이 넘치는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건립하였다.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석불양식과 매우 다른 독창적인 석조삼존불상을 특별하게 명령하여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든 것이다.(그림 5)

태조 왕건이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통일신라 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든 이유는 전 왕조와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는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왕조교체의 차별성을 석조미술로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왕릉 석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은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기본적으로 고려 공민왕릉 제도를 따랐다.[36] 공민왕릉과 건원릉은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전면에 혼유석을 놓은 후 봉분 주변에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고 묘역 전면에 문석인과 무석인을 배열한 점에서

33) 馬城과 개태사에 대해서는 정성권, 「개태사 석조삼존불상 조성배경 재고—태조 왕건군 둔영지 마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백산학보』 92, 백산학회, 2012, 211-223면 참조.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券18 忠淸道 連山縣條, "乃命有司創開泰寺 (…) 特命司局勑造蓮宮"
35) 정성권, 「고려 태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東洋學』 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5, 166면.
36) 김버들・조정식, 「왕릉건축을 통해 본 박자청(朴子靑)의 김사행(金師幸) 건축 계승」, 『건축역사연구』 27-2,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 120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봉분 주면에 배치된 석물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양과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왕릉에서 참배객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장명등은 의도적으로 모양을 차별 있게 만들었다. 공민왕릉 앞의 장면등은 평면 방형임에 반해 태조 이성계의 왕릉인 건원릉 앞 장명등은 평면 팔각 장명등이다.

팔각의 조선왕릉 장명등은 조선 건국직후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조선왕릉의 상징물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그런데 조선 2대 왕 정종과 정안왕후의 무덤인 후릉의 장명등은 조선전기 왕릉 중 유일하게 평면 방형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있다. 후릉은 1412년 태종 12년에 만들어졌는데 태종이 후릉을 만들 때 왕릉 앞 장명등을 의도적으로 평면 방형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종은 사후에 신주가 종묘에 들어간 후 그 신주를 일컫는 이름인 묘호도 받지 못하였기에 오랫동안 공정왕으로 불려야만 했다.[37] 정종은 묘호는 물론 존호나 시호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 태종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종의 왕릉인 후릉의 장명등을 방형으로 만든 이유는 정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태종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릉의 장명등처럼 기념비적인 공간이나 기념물적인 성격이 있는 조형물의 조성에는 만든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게 마련이다. 태조 왕건이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을 통일신라 불상과 다르게 만든 이유는 차별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이 대형 불교 미술품을 건립할 때 통일신라와 의도적인 차이를 보인 사례는 석탑과 탑비 등에서도 확인된다.

태조 왕건대 조성된 석탑으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6) 봉업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봉업사지 오층석탑 바로 북쪽에 통일신라시대 목탑지와 금당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들어와 봉업사지 오층석탑이 건립되고 목탑지는 금당지로 변하였으며 본래의 금당지는 강당지로 중창되었다.[38]

---

37) 장경희, 「조선후기 후릉(厚陵)의 수개와 그 영향」, 『東方學』 38,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8, 77면.
38)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2002, 83-98면.

1・2차 발굴조사 시 봉업사지 오층석탑 부근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상화문이 장식된 막새기와와 '華次寺'명 기와 '大中八年(854년, 문성왕 16)'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기와로는 '能達'명 기와와 '西州官'명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능달명 기와에는 "□年乙酉八月日竹…/…里凡草伯士能達毛"라는 명문이 기와의 등면에 양각되어 있다. 이 명문기와는 청주출신 능달이 925년 8월에 죽주에서 대규모 불사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39]

능달은 936년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러 갈 때 支天軍大將軍으로 대 후백제 전쟁에 참전하였던 왕건의 핵심 측근이다.[40] 통일신라시대 현재의 봉업사지에 있었던 화차사는 신라말기 죽주적괴 기훤의 봉기로 인해 폐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태조 왕건은 청주출신 능달을 시켜 봉업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것으로 여겨진다. 925년 8월경에 봉업사를 중창한 태조 왕건은 925년 10월부터 후백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서 '능달'명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통일신라 목탑지가 금당지로 변모되는 대규모 중창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금당지 앞에 조성된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태조 왕건의 명으로 능달이 조성한 고려 건국 직후의 오층석탑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평면 방형의 이중기단을 갖춘 통일신라의 정형기 삼층석탑과 의도적인 차이를 보이고자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하였다. 먼저 석탑을 단층기단의 오층 석탑으로 만들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오층석탑은 만들어졌으나 기본적으로 평면 방형 이중기단을 갖춘 삼층석탑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탑이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건립 이후 고려전기 국가의 후원을 받아 조성된 주요 사찰의 석탑은 오층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일층 탑신석이 일반적으로 한 개의 돌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마치 기단부를 결구하듯이 여러 매의 판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단 갑석 상면에는 통일신라 석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배수로와 같은 홈도 만들었다. 또한 1층

39)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14면.

40) 『高麗史節要』 권1, 태조19년 9월; 정성권,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봉업사지 석불 입상과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51, 高麗史學會, 2013, 191면.

탑신석 전면에 입체적인 사리공을 만들고 문비장식을 달았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통일신라 삼층석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림 5]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그림 6] 봉업사지 오층석탑



[그림 7]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고려 건국 후 조성된 탑비에서도 통일신라와 의도적인 차이를 두고자 조각방법에 다양한 시도를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태조 왕건이 친히 비문을 작성하고 당태종 글씨를 집자하여 만든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는 통일신라시대의 탑비와 양식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는 강원도나 경상북도의 사람들이 개경을 향할 때 충주를 거쳐가지 않는 한 반드시 들러야 되는 흥법사 금당 바로 옆에 건립되었다. 태조 왕건은 재위기간 11개의 탑비를 건립하거나 비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문은 최언위가 작성하였는데 오직 흥법사지 탑비만 태조 왕건이 친제하였으며 글자 또한 당태종 글씨를 집자하여 탑비를 만들었다. 또한 흥법사지 탑비 陰記에는 고려가 웅비하여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는 다른 탑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음기 내용이다.[41]

태조 왕건대 조성된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은 후백제 유민들에게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의 등장을 알리는 기념물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는 강원도와 경상도지역 신라 유민들에게 고려의 등장을

41) 정성권,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 塔碑의 현상과 조성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359-364면.

알리는 기념비의 역할도 하였다. 승탑과 탑비는 국사나 왕사를 역임하였거나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었던 승려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건립될 수 있는 기념물이다.[42] 탑비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었던 태조 왕건은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의 형태를 통일신라 탑비와 차별성을 두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흥법사 진공대사 탑비는 통일신라시대 일반적인 탑비보다 그 크기가 더욱 커졌으며 귀부의 용두와 이수의 용 조각은 통일신라시대 탑비보다 역동적이며 강인한 인상을 풍기도록 조각되었다.

지금까지 태조 왕건에 의해 조성된 석불, 석탑, 탑비를 살펴보았다. 태조 왕건의 명으로 만들어진 불교미술품들의 특징은 통일신라 작품들과 의도적인 양식적 차별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은 이미 후삼국시대 태봉의 궁예정권기 조성된 불교미술품들에서도 확인된다.[43] 고려 건국 이후 태조 왕건 때는 궁예정권기 때보다도 신라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졌으며 기념비적인 불교미술품에 나타난 전 왕조와의 양식적 차별성은 고려 광종대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광종은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등 앞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면류관현보개를 착용한 불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상의 흐름을 신양식 불상의 등장으로 보기도 한다.[44]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태조 왕건시기 국가적 후원 하에 조성된 불교미술 작품들은 모두 통일신라 작품과 의도적인 차별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봉업사지 오층석탑,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등은 태조왕건과 관련 있는 명문와의 기록, 문헌 기록, 금석문 기록 등이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든 태조 왕건이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상을 그대로 모방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미술사의

---

42)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18면.

43) 궁예는 통일신라시대 고복형 석등과 차별성을 보이는 풍천원 석등을 만들었으며 석불 또한 '궁예미륵'을 만들어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알렸다. 이에 대해서는 정성권, 「태봉의 불교조각과 철원 동송읍 마애불」, 『문화사학』 56, 한국문화사학회, 2021, 29-67면 참조.

44) 진정환, 「고려전기 신양식 석불의 전개와 조성배경」,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5-27면.

양식흐름과 당시의 역사적 상황,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등을 고려한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신양식 시대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광종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신라 양식이 강하게 반영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천왕사지 바로 옆에 있는 동사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동사지 발굴성과를 통해 본 하사창동 철불

(1) 동사지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20여차례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천왕사에 봉안되었던 철불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천왕사지는 하사창동 65-4일원과 그 주변지역이 중심사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00미터 지점에서 하사창동 철불이 옮겨져 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천왕사지 중심 사역에서 동남쪽 270미터 지점에는 하사창동 철불의 석조대좌 상대석이 있었다. 천왕사지는 사지의 서쪽에 덕흥천이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있고 동쪽에는 해발 292미터인 객산이 있다. 사지의 북쪽에는 객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야산의 지맥이 있어 교산동 건물지와 경계를 만든다. 천왕사지 남쪽으로는 객산에서 덕흥천으로 흘러가는 골말천이 동서방향으로 지난다. 자연 지형을 통해 천왕사지의 사역 범위를 본다면 천왕사지는 남북길이 약 700미터, 동서길이 약 500미터 규모의 장방형 사역권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그림 4)

원주 법천사지의 경우 사지 남쪽에 있는 법천사지 당간지주부터 발굴조사가 완료된 법천사지 북쪽 건물지와 인접한 법천천까지 거리가 약 500미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천왕사지 중심사역에서 서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덕풍천은 천왕사의 서쪽 사역권 경계로 볼 수 있다. 이 덕풍천에서 서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동사지가 있다. 동사지에는 지름 5.1미터인 소조불상의 대좌 유구가 발굴조사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대 불상 대좌'이다.[45] 동사지에는 '우리나라 최대 불상대좌' 유구가 있으며 천왕사지는

45) 문명대,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불교미술』 10, 동국대 박물관, 1991, 203면.

‘세계 최대 철불’이 봉안되었던 셈이다.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사지는 10세기 중반경 이후 동시에 존속한 사찰이 된다. 천왕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9세기 말경부터는 이미 사찰이 존속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세계 최대 철불’이 만들어졌던 천왕사 바로 옆에 또 다른 초대형 사찰이 건립된 것이다. 대형 사찰이 바로 인접해 동시기에 만들어진 사례는 도성 내의 사찰을 제외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원주 법천사지와 거돈사지가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으나 두 사찰간의 직선거리는 3.2킬로미터 이며 두 사찰 사이에는 해발 342미터의 황학산 줄기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동사지와 천왕사지의 지형을 보면 동사지 오층석탑 뒤편의 야산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약 15분 내외 정도만 걸으면 천왕사지에 사역의 경계선인 덕풍천에 도달한다. 천왕사와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곳에 새로운 초대형 사찰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본다면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주체와 조성배경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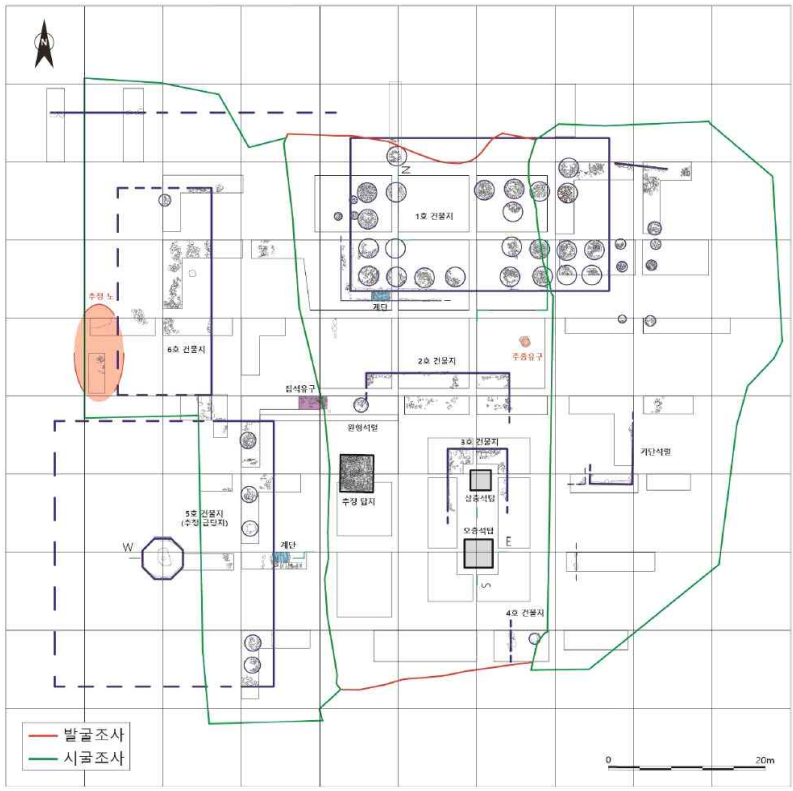
(2) 발굴성과 분석

동사지는 천왕사지의 서쪽에 위치하며 하남 춘궁동사지로 더 잘 알려져 왔다. 동사지의 위치는 하남 이성산성 남문지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6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다. 사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삼국시대 이래 신라 신주의 치소성으로 활용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도 이용되었던 이성산성이 있다.[46] 이성산성의 주 출입문은 남문인데 이성산성 남문과 동사지 사이에는 교산동 건물지에서 현재의 송파구 한강 방면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사지의 위치는 교통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에 조성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동사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이성산성이 바로 한 눈에 들어온다.

동사지에는 보물로 지정된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과 동사지 삼층석탑이 나란히 서 있으며 초석이 노출된 건물지가 석탑의 서쪽과 북쪽일대로 연이어

46) 심광주, 「이성산성과 하남시 고대유적의 성격」,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중부고고학회, 2015, 93-94면.

흩어져 있었다. 동사지는 일제강점기 실시된 고적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되었으며[47] 동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는 1983년 단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동사지 지표에서 "辛酉廣州桐寺"라는 명문기와와 막새기와편이 수습되었다. 명문기와에 새겨져 있는 "辛酉"는 961년(광종 12)으로 알려져 있다.[48]



[그림 8] 동사지 발굴 현황 도면, ©불교문화재연구소

동사지는 1988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때의 발굴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금당과 금당 내부에 있는 대좌 유구이다. 동사지 금당은 정면 28.9m, 측면 20.8m에 이르는 대형 건물로서 금당 정 중앙에는 직경 5.1m의

47)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跡調査保辜』, 1920, 604-607면.
48) 정영호, 「廣州 春宮里 寺址 一考」, 『藍紗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동양학논총간행위원회, 1984, 550면.

거대한 팔각대좌가 있으며 주변에서는 소조로된 불상의 나발편이 출토되었다. 동사지 팔각대좌는 석굴암 본존불 대좌의 직경보다 훨씬 크며 현재까지 발견된 대좌로서는 가장 거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팔각대좌가 봉안되었던 건물은 정면 28.9미터이며 측면은 20.8미터나 되는 크기로 황룡사 금당보다 작지만 측면은 거의 동일한 편이어서 신라가 국력을 동원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황룡사 금당과 맞먹는 건물이 있었다.[49]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물지의 장축은 잔존기단을 중심으로 34.1m로 파악되었다.[50]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동사지 발굴조사는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사지 석탑 주변과 건물지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총 5개의 토층이 확인되었으며 토층의 제일 윗부분인 1층은 표토층이며 그 아래 토층인 2층은 유물 폐기층이었다. 3층은 고려시대 문화층이고 4층은 고려시대 문화층을 지정하기 위해 정지된 토층이었다. 5층은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토층을 통해보면 동사는 통일신라 건물지 위에 땅을 다시 다진 후 창건에 가깝게 동사를 중창한 것이다.



[그림 9] 동사지 금당 대좌 유구(직경 5.1m)



[그림 10] 동사지 발굴조사 전경 ©불교문화재연구소

동사지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유구는 동사지 삼층석탑에서 10여 미터 서쪽(삼층석탑 전면)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49) 문명대,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佛教美術』 10, 동국대 박물관, 1991, 203면.
50) 불교문화재연구소, 「하남 동사지(1차)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자료집」, 2021, 24면.

탑지이며 그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 원형석렬과 집석유구가 확인되었다.[51] 고려시대 유구는 1~6호 건물지와 주종유구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중 5호 건물지는 초대형 불상 대좌 유구가 있는 금당지이며 1호 건물지는 장축의 길이가 33미터, 단축의 길이가 20미터 정도 되는 대형건물지이다. 이 건물지는 강당건물지로 추정된다. 동사지는 고려초기 오층 석탑을 중심으로 대좌 유구가 있는 서쪽의 건물이 금당이 되며 오층 석탑 북쪽의 대형 건물지가 강당이 되는 가람 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52](그림 8)

동사지 금당지와 강당지에서 발견된 막새기와는 자방을 중심으로 꽃술대가 있는 연화문 기와이다 자방을 둘러쌓고 수직의 꽃술대가 새겨진 막새기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에는 꽃술대가 있는 기와보다 연화문만 있는 기와가 주로 선호되었다. 이에 반해 고려전기, 특히 10세기대에 고려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아 창건되거나 중창된 사원은 꽃술대가 있는 막새가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초기 대표적인 꽃술대가 있는 막새 사용 사례는 하남 동사지를 비롯하여 개성 만월대, 충주 숭선사지, 청주 흥덕사지, 안성 봉업사지 등을 들 수 있다.[53] 이중 충주 숭선사지는 광종이 954년(광종 5)에 죽은 어머니 충주 유씨 神明順成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창건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54] 숭선사지 창건기 기와는 자방 주변에 꽃술대가 선명히 시문된 기와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기와를 통해 고려초 광종대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아 창건되거나 중창된 사찰 및 관영 건물에는 주로 꽃술대 문양이 시문된 막새기와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봉업사지에서도 "辛酉"명(961년, 광종 12) 기와를 비롯하여 광종 7-25년 사이의 명문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막새기와 역시 숭선사지와 유사한 꽃술대가 있는 연화문 막새기와가 함께 발굴되었다.[55]

---

51)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글, 20면.
52) 불교문화재연구소, 같은 글, 29면.
53) 각 유적별 출토 유물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9; 충청대학 박물관, 『충주 숭선사지 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淸州大 博物館, 『淸州 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1986;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京畿道博物館, 『高麗 王室寺刹 奉業寺』, 2005; 불교문화재연구소, 「하남 동사지(1차) 시,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자료집」, 2021.
54) 『고려사』 권2 광종 5년, "五年 春創崇善寺追福先妣"

동사지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辛酉廣州桐寺"명 기와가 수습되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꽃술대가 있는 연화문 막새기와가 동사지 금당과 강당의 대형 건물지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또한 초대형 대좌가 있는 금당과 강당지 모두 초석이 중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는 광종에 의해 961년(광종 12) 통일신라 건물터를 새롭게 정지하고 그 위에 대대적으로 중창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광종은 왜 961년경에 '우리나라 최대의 불상대좌'와 우리나라 최대의 소조불상을 봉안한 동사를 천왕사 바로 옆에 창건했는지 그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천왕사 바로 옆에 동사를 크게 조성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면 천왕사지 철불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 역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 광종대 불사를 통해 본 천왕사지 철불

고려 광종은 천왕사와 바로 인접한 곳에 961년(광종 12) 동사를 창건하였다. 동사 창건배경과 천왕사 철조여래좌상의 조성시기를 고찰할 때 96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961년은 광종이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 개경을 皇都라 칭하며[56] 스스로 황제의 반열에 오른 다음 해이기 때문이다.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960년부터 구신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단행하였다. 광종의 숙청작업은 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광종 말년까지 16년간 지속되었다.[57]

광종은 본격적인 구신 숙청작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구신들과 반 광종세력들의 반란에 대비하는 치밀한 준비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봉업사의 수리와 중창이다. 광종대 중건된 사찰로는 앞서 언급한 봉업사지를 들 수 있다. 봉업사지는 통일신라시대 화차사가 건립되어 있었던 곳이며 신라말 폐허가 된 곳을 태조 왕건이 능달을 시켜 중창한 곳이다. 이후 광종대 들어와 956년(광종 7), 958년(광종 9), 961년(광종 12), 968년(광종 18), 974년(광종 25) 등 지속적으로 봉업사의 수리와 중창이 진행되었다.[58]

---

55)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2002, 455면.
56) 『고려사』 권2 광종 11년.
57)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전.

봉업사지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보았을 때 고려 광종은 다른 어떤 사찰보다 봉업사의 사세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광종이 죽주 봉업사를 특별히 신경 쓴 이유는 죽주 남쪽에 위치한 진천과 청주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광종이 특히 경계하며 반란에 대비하였던 세력은 진천과 청주세력이었다. 진천과 청주는 죽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혜종과 정종의 처가세력들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혜종과 정종은 광종과 권력투쟁을 벌였던 대상이었다. 혜종의 장인은 진천 임희와 청주 김긍률, 경주 연예 등이 있다. 김긍률은 정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혜종과 정종을 지지하였던 중앙정부의 핵심 정치세력은 광종의 즉위와 함께 제거되었다. 그러나 반광종 세력의 지방 근거지에 자리 잡고 있던 호족세력들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호족세력들은 광종이 등극한 후 표면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나 언제든지 광종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었다.[59]

죽주 봉업사는 진천과 청주세력을 견제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한 후 봉업사 북쪽에 황제를 상징하는 면류관형 보개를 착용한 거대한 불상을 건립하였다. 이 불상은 안성매산리 석조보살입상으로서 961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60]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이 서 있는 장소는 개경에서 청주와 충주방향으로 길이 갈라지는 곳이 된다. 광종은 교통의 요지인 봉업사 북쪽에 황제를 상징하는 면류관형 보개를 착용한 불상을 세워 호족의 시대는 끝났으며 황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방에 선포 한 것으로 추정된다.[61]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기 이전부터 구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준비를 하였으며 또한 자신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해 갔다. 이는 광종대 시행된 여러 佛事와 관방유적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알 수 있다.[62] 봉업사 바로 뒤편에는 죽주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 역시 광종대 활용된

58) 경기도박물관, 『奉業寺』, 2002, 455면.
59) 정성권, 2013, 앞의 글, 245면.
60) 정성권,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東岳美術史學』 22, 동악미술사학회, 2017, 93-97면.
61) 정성권, 「고려 광종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硏究』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24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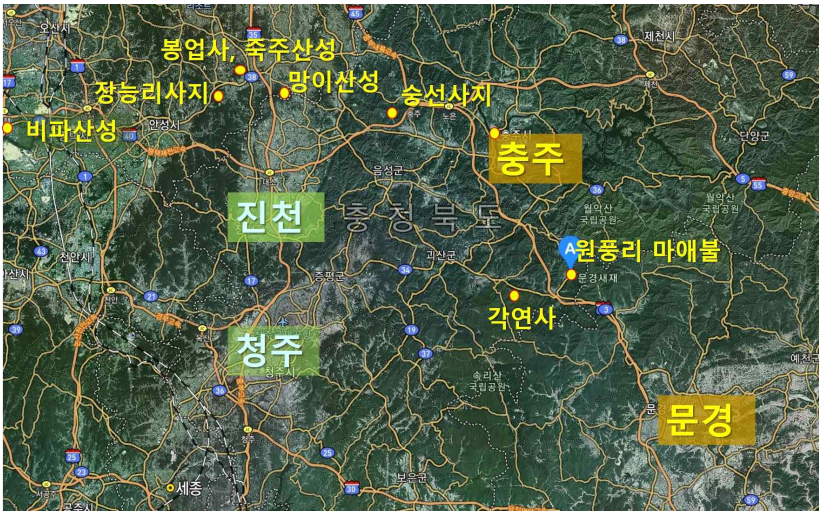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봉업사와 멀지 않은 망이산성 역시 963년(광종 14)에 서문지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63] 망이산성 서문지는 죽주에서 진천으로 향하는 고갯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지이다. 즉 망이산성은 진천지역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천과 죽주를 연결하는 또 다른 교통로에는 960년(광종 11)에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였다.[64] 가까운 곳에 봉업사가 있음에도 광종이 새로운 사찰을 창건한 이유는 죽주와 진천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감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천과 청주세력이 반 광종세력이었다면 충주는 광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광종은 지속적으로 봉업사를 수리 및 중창하였으며 충주와 봉업사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54년(광종 5)에는 봉업사와 충주 중간 지점에 숭선사를 창건하였다. 광종이 숭선사를 창건한 목적은 죽은 어머니인 충주 유씨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명목상의 이유이며 실질적인 창건 배경은 광종의 즉위 과정 중 분열되었을 충주유씨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광종의 지지세력 이었던 충주유씨 세력과의 물리적 소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6]

광종은 죽주를 중심으로 봉업사, 죽주산성, 망이산성, 장능리 사지 등을 수리하고 새롭게 만들었다. 죽주 동쪽에는 숭선사를 창건하여 충주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죽주 서쪽인 현재의 평택에는 965년(광종 16)에 비파산성을 축조하였다.[67] 광종은 평택-안성(죽주)-숭선사-충주-제천-영월을 잇는 지역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며 동시에 본격적인 구신 숙청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종대 신축하거나 중창한 불상, 사찰 및 관방유적의 연결선은

62) 광종대 진행된 대대적인 불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성권, 앞의 글, 2013, 231-249면과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문화재』 5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224-242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63) 단국대 중앙박물관,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246-251면.
64) 中央文化財硏究院, 『安城 長陵里 골프장 豫定敷地內 安城 長陵里寺址』, 2008, 76-78면.
65) 『高麗史』 卷2 光宗5년.
66) 정성권, 앞의 글, 2013, 231-249면.
67)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4, 359면.

충주-원풍리 마애불-각연사로도 연결된다.[68]



[그림 11] 광종대 조성 및 중건된 유적 현황도[69]

황제국 체제 완성을 위한 광종의 치밀한 준비 작업은 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광종이 죽주 지역에 위치한 사찰과 산성을 집중적으로 수리하고 신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광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다. 광종은 자신과 권력투쟁을 벌였던 진천 및 청주세력을 견제하고 그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진천과 청주의 북쪽과 동쪽일대 주요 교통로에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하였다. 또한 [그림 11]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바파산성을 축조하고 기존에 존재하였던 산성을 수리하였다.

이러한 광종이 961년 천왕사 바로 옆 동사에 '우리나라 최대 불상 대좌'를

68) 원풍리 마애불과 각연사가 광종대 조성되고 중창되었다는 의견은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문화재』 5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224-242면.
69)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문화재』 53-3, 2020, 국립문화재연구소, 233면, 사진 13 인용.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소조불상을 조성하였다. 광종이 동사지에 초대형 소조불상을 조성한 이유는 '세계 최대 철불'인 천왕사지 철불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종이 자신의 정적을 의식하여 대형 불상을 조성한 사례는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조성된 곳은 광종을 지지하는 충주세력과 혜종 및 정종을 지지하였던 진천 및 청주세력이 만나는 접경지대 같은 곳이다. 이곳은 한때 혜종을 지지하였던 문경의 발해유민과 진천 및 청주세력이 소백산맥을 넘어 서로 통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고려 광종은 발해에서 유행하였던 이불병좌상을 대형 마애불 형태로 조성하여 발해 유민이 광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70]

초대형 마애불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형 사찰인 하남 천왕사가 이미 번창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대형 사찰인 동사를 천왕사 바로 옆에 조성한 이유는 광종이 천왕사를 의식하고 견제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광종이 천왕사를 의식하고 견제한 이유는 광종이 진천·청주 세력을 의식하고 견제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종이 961년 동사를 창건한 이유는 961년을 전후하여 조성한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의 건립배경과 동일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을 봉업사지 인근 교통의 요충지에 조성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진천 및 청주세력에게, 간접적으로 전국의 백성들에게 황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즉 광종은 천왕사 바로 옆인 동사에 천왕사 철조여래좌상보다 더 거대한 불상과 건물을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힘이 천왕사 철조여래좌상을 만든 세력보다 높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광종이 의식한 천왕사 철조여래좌상을 만든 세력은 누구일까. 이는 진천·청주 세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천왕사와 관련된 반 광종 세력은 바로 혜종과 왕규를 들 수 있다. 왕규는 혜종의 처가세력이며 태조 왕건의 명을 받아 박술희와

70) 정성권, 앞의 글, 2020, 232-238면.

함께 혜종을 적극 후원한 인물이다. 광주대호족 왕규는『고려사』열전 반역조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충주유씨 세력에 대항하다 죽임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혜종은 왕규와 박술희를 두 축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는데 943년 5월 29에 즉위하였으며 945년 9월 15일에 죽었다.[71] 혜종을 지지했던 왕규는 945년 그를 따르던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혜종에 대한 반역죄의 책임을 물어 죽임을 당하였다고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72] 그러나 왕규는 왕요군(정종)으로 대표되는 충주유씨 세력이 혜종을 폐위시키는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혜종과 왕규는 945년 죽었으며 개경에서 그를 따랐던 세력 역시 함께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의 근거지인 광주일대에서는 여전히 반 충주유씨 정서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왕규는 자신의 두 딸을 태조 왕건에게 시집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딸을 혜종에게도 출가시켰다. 태조에게 시집간 왕규의 딸은 광주원군을 낳았는데 당시 왕규의 권위를 고려한다면 혜종에 이어 왕위를 이을 가능성 또한 있었다. 그런데 충주유씨세력의 반란으로 인해 혜종과 왕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친 혜종 세력이었던 청주와 진천 세력이 혜종이 죽은 지 10여 년 이상 지난 광종대에도 여전히 반 광종의 정서가 있었던 것처럼 광주지역 주민들 역시 반 광종 정서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왕규와 함께 처형된 3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광주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주지역의 반 광종 정서는 광종이 특히 견제하였던 진천이나 청주지역의 세력보다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광종이 동사에 '우리나라 최대의 불상대좌'를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소조불상을 조성한 이유 중 하나는 '세계 최대 철불'인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의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

71)『고려사』권2 세가2 혜종총서; 혜종 2년 9월.
72)『고려사』권127 열전40 반역조 왕규.

3)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배경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천왕사에 봉안된 철불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조성시기는 주로 태조 왕건대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조 왕건대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대형 불교미술품을 살펴보면 태조 때 조성된 석탑, 불상, 탑비는 모두 통일신라와 의도적인 차별성을 강조한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을 그대로 모방한 천왕사지 철조여래좌상은 태조 왕건대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동사에 천왕사를 의식하여 대형 사찰과 소조불이 광종에 의해 새롭게 창건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천왕사지 철조여래좌상은 반광종 세력 즉 혜종과 왕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천왕사지 철불이 혜종과 왕규에 의해 제작된 근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천왕사지 철불이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직접적으로 모방한 이유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려 태조 왕건과 고려 4대왕 광종은 대형 불상이나 석탑, 탑비를 제작할 때 의도적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하사창동 철불은 통일신라 불교조각 전통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혜종과 왕규는 하사창동 철불을 조성 할 때 의도적으로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그 이유는 먼저 석굴암의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석굴암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정점에 다다른 작품으로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다.

혜종과 왕규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굴암 본존불을 적극적으로 모방한 하사창동 철불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신라의 전통을 혜종이 계승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혜종은 잘 알려있다시피 외척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혜종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석굴암 본존불과 매우 흡사한 모습의 대형 철불을 천왕사지에 조성한 목적은 신라의 정통성을 혜종이 계승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구 신라세력이 혜종을 지지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려 광종이 발해에서 유행하였던 이불병좌상을 괴산 원풍리에 초대형으로 만듦으로써 발해세력이 광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혜종대 조성된 철불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시대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석불이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각연사의 주존불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기에 그 조성시기는 각연사 창건기로 볼 수 있다.

혜종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방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각연사를 들 수 있다. 혜종 즉위 후 자신의 처가 세력이었던 진천 및 청주세력은 충주 세력과의 갈등 관계가 깊어져 갔다. 충주 세력은 후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왕요와 왕소의 외척세력이다. 진천 및 청주세력은 혜종의 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충주세력을 견제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도는 각연사의 창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적·군사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공간으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진천과 청주방향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조령이 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연사는 진천과 청주 방면에서 괴산을 지나 조령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다. 1768년(영조 44)에 쓰여진 '覺淵寺三世如來及觀音改金記'에 의하면 각연사는 태조 때부터 광종 재위시기까지 활동한 통일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현재 각연사 비로전에 봉안되어 있는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시기는 신라하대 9세기말에서 10세기초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73) 淸州大 博物館, 『槐山郡 文化遺蹟』, 1994, 28-29면.

추정된다.[74] 후삼국시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연사는 후삼국 시대 창건된 사찰로 보기 어렵다. 아마도 각연사는 전해지는 기록대로 후삼국 통일직후 태조 왕건이나 혜종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볼 수 있다. 각연사는 태조 왕건시기 창건되어 혜종 때 중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천과 청주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태조 왕건시기보다 혜종에 의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75]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적극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통일신라시대 불상인 동화사 비로자나불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고자 시도한 이유는 천왕사지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이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한 이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혜종 지지세력인 왕규를 비롯한 광주세력은 통일신라 전통이 강하게 반영된 하사창동 철불을 조성하여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혜종이 계승했다는 것을 표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연사로 대표되는 혜종 지지세력인 진천·청주세력은 통일신라 조각 양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만듦으로 해서 통일신라의 정통성이 혜종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혜종은 교통의 핵심 지역이며 자신의 지지세력인 왕규가 있는 광주(현 하남)에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을 모방한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하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지 세력인 청주 및 진천 세력과 자신의 반대세력인 충주세력의 접점 장소인 괴산 각연사에도 통일신라 불상인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모방한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혜종은 혜종을 지지하는 나주오씨 세력과 충주유씨를 지지하는 순천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지역인 해남지역에도 통일신라 전통이

74) 최성은, 「중원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 3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65-68면.

75) 비로전 대들보에서 발견된 묵서에는 고려 혜종(944-945) 연간에 중수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영동대 산학협력단, 『각연사(覺淵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종합정비계획수립』, 2013). 그러나 필자가 직접 묵서명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각연사는 혜종에 의해 창건되었거나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다.

강한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을 조성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었다.[76]

고려초기 불교미술은 앞 시대와의 차별성이 강조된 작품이 태조와 광종시기에 주로 만들어졌다. 상대적으로 외척세력의 힘이 약했던 혜종은 구 신라세력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초기 탈 신라적인 불교미술의 흐름 속에 신라적 속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혜종은 통일신라 양식이 강하게 나타난 불상 조성을 통해 신라세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혜종은 하사창동 철불좌상의 조성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좌상은 '세계 최대 철불'로도 알려져 있는 초대형 철불이다. 하사창동 철불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태조 왕건대 조성된 불상으로 알려져 왔으며 조성 후원세력으로는 광주의 대호족 왕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문에서는 태조 왕건대 조성된 불교미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조 왕건대 조성된 기록이 있는 작품으로는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통일신라 작품들과 차별성을 드러나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를 상징하는 불교미술품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석굴암 본존불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불교미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하사창동 철불은 태조 왕건시기 조성된 불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문에서는 하사창동 철불의 조성시기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바로

76) 혜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에 대해서는 정성권,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 『보조사상』 64, 보조사상연구원, 2022, 205-233면 참조.

인접한 동사지의 발굴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려 광종이 반 광종 세력이었던 진천과 청주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창하거나 새롭게 만든 사찰과 관방유적, 마애불 등을 살펴보았다. 하남 동사지는 발굴조사결과 961년 광종대 크게 중창되었으며 초대형 소조불상이 만들어졌던 사찰임이 밝혀졌다. 하사창동 철불이 있는 천왕사지가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광종은 천왕사지 옆에 대형 사찰을 창건하고 초대형 불상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동사의 창건을 통해 반 광종 세력이었던 광주지역 세력에게 고려 광종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려 광종은 반 광종 세력이었으며 친 혜종 세력이었던 진천과 청주세력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려 광종은 천왕사지 바로 옆 동사지에 거대한 소조불상을 조성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반 광종세력을 견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굴성과 및 광종대 연구성과의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는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조여래좌상을 조성한 세력이 혜종과 왕규였음을 논하였다. 혜종이 석굴암 본존불과 동일한 모습의 대형 철불을 조성한 이유는 구 신라세력이 혜종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 신라의 정통성을 혜종이 계승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 참고문헌

關野貞,『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권보경,「하남 하사창동 철불좌상의 함의와 기념비성」,『미술사학』4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21.
류영철,『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景仁文化社, 2004.
문명대,「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불교미술』10, 동국대 박물관, 1991.
불교문화재연구소,「하남 동사지(1차)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자료집」, 2021.
엄기표,『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이숙희,「하남 천왕사지 철불좌상의 출현과 의미」,『한국중세고고학』8,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
이재범,『高麗 建國期 社會動向 硏究』, 景仁文化社, 2010.
정성권,「고려 광종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韓國人物史硏究』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_____,「고려 태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동양학』6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5.
_____,『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15.
_____,「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문화재』5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_____,「태봉의 불교조각과 철원 동송읍 마애불」,『문화사학』56, 한국문화사학회, 2021.
_____,『고려와 조선 석조문화재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21.
_____,「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조성시기와 조성배경」,『보조사상』64, 보조사상연구원, 2022.
정영호,「廣州 春宮里 寺址 一考」,『藍紗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동양학논총간행위원회, 1984.
中吉功,「造像銘のみる新羅の鐵佛二種」,『朝鮮學報』12, 朝鮮學會, 1958.
진정환,「고려전기 신양식 석불의 전개와 조성배경」,『미술사학연구』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_____,「고려 초 하남지역 불교미술품의 조성 양상」,『文化史學』57, 한국문화사학회, 2022.
최성은,「고려초기 광주철불좌상연구」,『불교미술연구』2,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
_____,「중원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강좌미술사』3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최태선,「하남의 사원유적과 유물연구」,『하남역사총서』2, 하남역사박물관, 2020.
黃壽永,「高麗時代의 鐵佛」,『考古美術』166·167, 韓國美術史學會,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iton Background of Iron Seated Buddha Statue in Cheonwangsa Temple Site, Hasachang-dong in Hanam

Jeong, Seong-Kwon*

The Iron Seated Buddha in Hasachang-dong, Hanam is an iron Buddha currently on display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iron Buddha is also known as 'the world's largest iron Buddha'. The Hasachang-dong iron Buddha was taken out of its original place in 1911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achang-dong Iron Buddha has been known as an iron Buddha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Wang Geon. In this paper, stone Buddhas, stone pagodas, and stone monument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Taejo Wang Geon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Buddhist art work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tried to reveal a strong difference in terms of form from the previous dynastie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Hasachang-dong iron Buddha, which directly imitates the main Buddha of Seokguram Grott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Taejo Wang Geon.

In order to reveal the construction period and background of Hasachang-dong iron Buddha, the excavation results of Dong temple site, which is adjacent to Cheonwangsa temple site, were analyzed. Through this, it was discussed that in the case of the iron Buddha at Cheonwangsa Temple Site in Hasachang-dong, it was made by Hyejong and Wang Gyu, who supported him, who had a power struggle with the Chungju Yu family. The reason why Hyejong created the iron Buddha in Hasachang-dong was identified as having an intention to show that Hyejong inherited the legitimacy of Unified Silla and that the old Silla powers supported Hyejong.

Keywords: Iron Seated Buddha Statue in Cheonwangsa Temple Site, Taejo Wang Geon, Hyejong (惠宗), Gwangjong (光宗).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Research Fellow,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